부산연등회, 4월 18일 송상현광장서 개막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표로
5월 9일까지 프로그램 다채
소원등 수익, 나눔으로 회향
석산 스님 "공적 가치로 인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지난해 열린 부산연등회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의 안녕과 자비를 기원하는 '2569부산연등회'가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송상현광장과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연등회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통과 문화적 가치 위에, 부산시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등회의 전체 일정과 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과 등을 공유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2569부산연등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부산불교계의 정신과 문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전통"이라며 "이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도적 보호와 계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등 제작, 관불의식, 육법공양, 느티떡 전승회 등은 무형문화유산의 요건을 갖춘 문화 행위들"이라며 "그동안 이를 다듬고 축적해 온 만큼, 이제는 공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산연등회는 축제성과 의례성을 함께 지닌 지역 대표 불교문화행사로, 시민과 불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점등식은 4월 18일 오후 7시 송상현광장에서 열린다. 점등식, 호기놀이, 간이 연등행렬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에게는 소원등 달기 체험도 제공된다.

송상현광장에서는 5월 6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이어지며, 전통등 전시와 문화체험, 무차만발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4월 26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에서는 부산연등회 본행사가 개최된다. 이날은 연희단 경연무대 '어울림한마당'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관불의식, 봉축대회,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소원등 달기' 체험 수익금은 매년 자비나눔 기금으로 사용돼 왔다. 올해는 산불 피해 지역 혹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회는 "무엇보다 시민의 정성과 뜻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 중 SNS에 참여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드라이기, 갤럭시워치7 등이 증정되는 SNS 공모전도 이뤄진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연등회가 부산의 정신과 문화를 잇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 여정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일정 및 참가 신청은 부산불교연합회 홈페이지(www.bba48.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3월 28일, 범어사 금강계단
92명 비구·비구니 스님 탄생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92명의 수계자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총 92명의 비구·비구니 스님이 새롭게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조계종 계단위원회는 3월 28일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8박 9일간 진행된 구족계 수계산림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사미 68명과 식차마나니 24명 등 총 92명의 수계자가 구족계를 수지하게 됐다.

수계산림은 3월 20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이어졌으며, 수계자들은 예불과 참회, 경전 독송, 계율과 의궤 학습 등 엄정한 수행과정을 통해 출가자의 자격을 갖췄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향사에서 "출가의 길은 간절한 구도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깨달음의 여정이며,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자 하는 전법의 길"이라고 밝히고 "오늘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율과 청규를 엄수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1700년을 이어온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정신은 바로 이러한 계율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여러분은 그 전통을 계승한 종단의 일원으로서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족계는 출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며, 깨어있는 삶을 향한 등불과 같다"며 "수계자들이 바른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수행 정진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를 비롯해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 존증아사리 지운, 경성, 덕문, 효명, 서봉, 대경, 경암 스님 등이 3사 7증사로 계단을 증명했다.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수계자들에게 "불조의 혜명을 잇는 대중으로서 계율을 생명처럼 지니고 전법교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역 어르신 초청 '효잔치'

4월 1일, 공동체 회복 기원
혜도 스님 "치유 씨앗 되길"

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산불 피해로 마음까지 상처 입은 이웃을 생각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4월 1일 선원 내 마음강당에서 '2025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기재 영도구청장, 양준모 부산시의회 의원, 최찬훈 영도구의회 의장, 김기탁 부의장, 김정현 영도시니어클럽 관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기념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며 "최근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온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시기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치유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항상 지역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혜도 스님과 한마음선원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점심공양 이후 진행된 무대는 이수연 명창의 판소리 공연, 아코디언 연주자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신도 김종희 거사의 아코디언 연주로 흥을 더했다. 또 가수 홍자연은 트로트 무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위안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효잔치는 지원장 혜도 스님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자리로,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불교의 효 사상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는 지역 복지기관 및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릴렉스 토크콘서트' 개최

3월 28일, 안국선원 교육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대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불교의 시선으로 조명하며,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조석주)는 3월 28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에서 '대학생 마음관리 프로젝트 – 릴렉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교적 관점으로 함께 풀어보며,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을 비롯해 시원암 주지 도진 스님, 부산대 지도법사 법진 스님, 해피법당 지도법사 해피 스님, 대불련 동문 및 부산지역 10개 대학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돈, 성공, 행복…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안도 스님은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 사회적 인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조석주 지부장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전통 법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불교의 따뜻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와 소통 중심의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4월 11일~12일 보제루 금강계단서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범어사 보살계는 1901년부터 124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대표 보살계 법석으로,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불자가 동참해 부처님의 계율을 새기고 실천의 서원을 다지는 자리다. 올해도 수계 인연을 찾는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계산림은 4월 11일 오전 10시 입재를 시작으로 정근과 법문 등이 진행되며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 회향한다.

범어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계(戒)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신 가르침을 따라, 지계의 인연공덕을 되새기고자 이번 수계산림을 봉행한다"며 "수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는 일이자, 자비광명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는 곧 해탈의 열쇠이자 수행의 중심이며, 계를 지키는 삶은 부처님 법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라며 "이번 수계법석을 통해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그 공덕으로 성불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과 각 말사(암자)를 통해 가능하다. 051)508-3636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파라미타, 신입회원 환영회·발대식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서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오 스님)가 3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2025학년도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매년 신입회원 환영회 및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수행 중심 교육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대식은 총재 정오 스님, 지도법사 해공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장, 왕선자 부산파라미타 운영위원, 김경희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 파라미타 소속 학생 300여 명 및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대식에서는 지도교사 및 학생대표에게 임명장도 수여됐다. 지도교사 임명장 수여 대상자는 김서원(한얼고), 강지나(해동중) 교사였으며, 학생대표 임명장은 △고등부 회장 이지환, 부회장 문혜림 △중등부 회장 예서경, 부회장 이승진 학생에게 각각 수여됐다.

총재 정오 스님은 "스스로 경험한 것만큼 좋은 배움은 없다. 파라미타 활동은 여러분이 성장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등불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갖고 마음자리가 깊은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각사, '환경사랑 초록음악회' 연다

4월 19일, 불무도 공연 등 다채

조계종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오는 4월 19일 오후 1시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경내에서 '2025 환경사랑 자연사랑 초록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문화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환경사랑·자연사랑 활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식물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돼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이어 2부에서는 다도·불무도 공연을 비롯해 한여울 오케스트라와 여여한 중창단의 무대, 경기민요(이소정), 아일랜드 가수 코너(Conor)의 팝송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먹거리 장터와 어린이를 위한 환경사랑 체험부스도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대원각사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010-2113-8805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해동중, 녹색학교 협약 체결

3월 27일, 학교 내 회의실



해동중학교(교장 김종호)가 3월 27일 학교 내 회의실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녹색학교 협약식'을 체결하고, 환경보호 실천과 청소년 환경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김종호 해동중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 체결과 현판식을 가지며 환경운동 실천을 발원했다.〈사진〉

김종호 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경각심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동중은 녹색학교 협약식을 통해 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일회용 사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환경교육 프로그램 △녹색학교 확산 지원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